

“그래도 우리는 전진한다”

경제 성장이 주춤했다 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위축된다면 선진 국가 대열 참여를 목표로 하는 신생국의 소망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대담한 국가 공공 시설의 투자는 곧 도약하는 국민 경제의 발판이요, 모든 산업 발전의 기초 작업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항만, 공항, 도로, 교량등의 도로, 교통 시설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가 경제의 비약적인 도약과 국제화의 시기를 성큼 다가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실례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며 보아왔다.

그러나 외환 위기로 인해 초래된 IMF 구제금융 지원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 참으로 우려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다시 힘차게 공사는 계속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수많은 수난을 겪으면서도 굳건히 일어서서 국토건설에 매진해온 경험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이시점에서의 우리의 구호는 한결같아야만 한다.

“그래도 우리는 전진한다” 라고

우리나라는 현재 대형 토목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역사상 몇백년, 몇 천년에 못다 한 대역사가 불과 최근 수년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부작용과 누수현상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건설은 진전되고 있다.

도로교통을 위한 메머드공사로서 인천국제신공항공사, 경부고속전철공사, 서해대교 및 광안대교공사, 한강횡단의 하저 터널공사(기완공), 마포대교, 당산철교 경인운하(계획중)등은 몇십년전만 해도 엄두도 못낼 대형 공사다.

이 공사들이 끝나면 국토가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 국민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노릇이다. 이에 이런 대규모 도로, 교통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등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엘리트들의 공사 소개를 이에 모아서 신는다. 제2·제3탄의 공사 특집이 계속 나올 것이며, 우리 도로, 교통 기술인의 위상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편집실 -